

##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마치고

고 상 언 한전정보네트웍(주) 과장  
장 순 철 쌍용건설(주) 사원

**입** 하가 지난 지 엇그제 같은데 이렇게 찌는 듯한 것을 보면 우기가 가까웠나 보다. 장마철이 되면 안전관리자로서 긴장되는 시기이다.

지난 4월 13일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행 밤 열차에 몸을 실었다. 안동철교를 지날 즈음 어둠 속에서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무척이나 둔탁하게 들려왔다. IMF의 탓인가(?)……

차안은 조용하고 가끔 신문 뒤적이는 소리만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다. 밤새워 달려온 열차는 새벽녘에 총착역인 청량리역에서 멈추었고 많은 사람들은 서둘러 개찰구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역사 주변에는 일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듯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사우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초행길이라 서둘러 건설안전기술협회를 물어 물어 찾아가니 여직원이 가르쳐 준 대로 경기고등학교 옆 보람은행 3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첫날, 3주간 공부할 다섯 권의 책을 받고 9시

30분부터 개강식을 가진 후 수업과정 소개와 학생들 간의 상견례가 있었다. 개강식에서 이상열 협회장님의 첫 말씀,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회사가 교육을 보내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신게 기억에 남는다.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행운아들답게 수강생의 의가 대단하였다. 수강생 평균 연령은 32세, 최연소자가 25세, 최고령자가 73세였다.

기술자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들은 며칠 후 즉구시합을 갖고부터 환하게 변해 있었다. 서로 간에 커피 한잔씩 나누어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며, 안전관리자로서 현장애로 사항 등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교육기간 중 현장 실습 때 과제물 준비를 위해 여러 현장을 찾아다니며, 밤새워 재해분석 및 안전사고 사례 등을 작성할 때의 힘든 일이 가장 인상 깊었고 보람있었다.

지금까지는 ‘안전제일’이라 하면 구호나 제창하고 그저 완장이나 차고 현수막 제작에 신경

쓰는 것이 안전활동을 다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던 지난 날들이 부끄러웠다. 이제 교육을 받고 보니 안전제일은 “인간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고 안전관리자는 스텝으로서 그 임무가 때로는 귀중한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변화를 갖게 되었다.

금번 기회에 있어 그 동안 책으로만 알았던 훌륭한 교수님들을 직접 만나 지도를 받고 현장에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속 시원히 알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으며 무엇보다 맡은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여러명의 교육생들을 알게 되어 앞으로 현장에서의 애로점을 서로 의논 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개강식이 었그제 같았던만 벌써 4월 마지막날이 되어 우리는 수료식을 갖게 되었다.

모두들 환한 얼굴로 식당에 나타났다. 그 동안 교수님들의 정열적인 명강의에 부응하여, 열심히 배운 덕분에 전원 수료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짧은 3주 교육이었지만 건설안전관리자로서 직무수행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교육 기간중 뒤에서 수고해 주신 협회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 상 언/한전정보네트웍(주) 과장



물의 영장들이 깨어나는 계절, 연록색의 푸른빛이 아직 어려 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수줍은 듯 고개를 내미는 시점. 길고 추웠던 겨울동안의 눈과 얼음을 모두 녹여버리고 강렬한 햇살에 생명의 보조를 맞추려 모두를 부

산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IMF 체제 아래 맞게 되는 봄이라 그런지 이런 따뜻한 햇살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암울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침체된 산업, 모든 경기가 침체되어 움츠러 들고만 있는 경제, 비록 주변에서 그리 쉽게 느껴지지 않는 못했지만 새로운 질서와 가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변화의 움직임이 날로 활개를 띄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기, 설비, 건축, 생산, 토목…… 모두들 맡은 바 위치는 다르고 소속된 사업장, 나이, 장소도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결국 한가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는 모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104기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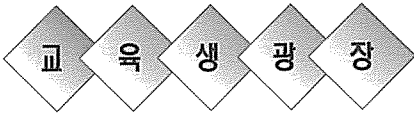
처음 협회에 들어와 본 글귀!

건설회사에 들어와 건설이라는 일을 하면서도 안전이라는 말을 쉽게만 생각했고 안일하게만 생각했던 지난날들, 어쩌면 누구나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었기에 쉽게 지나쳐 오기만 했었던 게 아닐까?

속담에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간다고 하죠?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아이들과 어울려 장난치던 개구쟁이 시절, 흙장난을 치며 두꺼비집 한번쯤은 모두 만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께, 새집 다오!”

일단 두꺼비 집을 지을 때는 바닥이 탄탄한 곳을 골라 고운 흙으로 외벽 테두리 부위를 조금 덮습니다. 그러곤 조그만 자갈로 외벽을 돌우고 다시 흙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꺼비가 들어갈 만한 입구 구멍과 내부를 돌이나 손등을 넣고 그 위에 고운 흙을 뿌리고 나서는 장단에 맞추어 흙을 다지게 됩니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나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나오!”

장단에 맞추어 지붕을 두드리며 열심히 열심히 양생을 시키고 나서 손을 빼내면 멋진 두꺼비 집이 완성 되지요.

이 때 다짐이 덜된 집은 쉽게 지붕이 무너져 버리고, 갈라지고, 바닥채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초다짐에서 자갈을 넣어 잘 다져진 집은 지붕만 고운 흙을

뿌려 다시 다지면 되지만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지지 않은 집은 다시금 기초부터 새로이 시작을 해야만 하죠!

“안전!”

건설, 생산, 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속해 있는 각 부류의 사람들이 안전이라는 교육을 받고자, 업무를 배우고자 모였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았던 3주라는 짧은 시간동안의 교육이었지만 여러 교수님들의 성실한 강의로 안전의 근본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人間尊中!”

쉽게 말하고 쓰고 읽는 말이지만 이번 교육의 모든 과정은 곧 인간존중의 마음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난 3주간의 시간, 교육생들 서로의 이름도 외우지 못한 너무나도 짧은 시간 동안 성실한 강의로 마무리해 주신 협회 교수님 이하 직원분

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현재, 미래! IMF 체제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보의 과정이며 피할 수 없는 폭풍의 하나라면 현실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합니다.

교육입소 첫날에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은 선택받은 행운아들이라고 하셨던 교수님의 말씀처럼

교육생 전원이 행운아로 언제나 청춘으로 사회의 기초를 짤 것입니다.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처럼 우리,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상을 잃지 않고 언제나 청춘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을 헤쳐나간다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 울만의 詩 ‘靑春’ 中에서 結으로 다시 한번 협회 임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과

104기 교육생 여러분들의 결코 사라지지 않는 청춘으로 각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기원합니다.

사무엘 울만의 시 ‘靑春’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그동안의 감사의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IMF극복, 국가경제 안정 내가 앞장서 이루자!  
좋아! 좋아! 좋아!…….

장 순 철/쌍용건설(주) 사원